

長期 生活設計를 위한 家計 分析

The Analysis of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For Family Economic Planning
—For the Housewives in Busan—

釜山産業大學校 理工大學 家庭管理學科

講 師: 金 英 淑

Department of Household Administration,
Busan San Ub University
Lecturer: Yeong-Sook Kim

目 次

- | | |
|-------------------|-----------------|
| 1. 序 論 | 1) 資 料 |
| 2. 家計의 消費理論과 先行研究 | 2) 資料의 分析과 假說檢定 |
| 3. 研究問題와 假說 | 5. 結 論 |
| 4. 研究方法 및 分析 | 6. 參考文獻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family economy planning in the side of economic welfare and to discuss its problems. Hypothesis testing and survey analysis whether nuclear family have been formed in the urban communities or not are investigated.

Also, survey analysis for monthly income, monthly expenditure and monthly savings is carried and hypotheses are tested.

The stages of family economic period are classified in the following manner.

First, as the beginning of family, they exert themselves to possess their own house.

Second, as the expending period of family, they are interested in savings, children's education and investment of an estate.

Third, as the contracting period of family, they rely upon other's financial supports.

Therefore, it is desirable for each family to establish family life cycle planning.

As the results of hypothesis testing,

- 1) Nuclear family have been formed in urban communities.
- 2) The age of housewives is not concerned with whether their husband's parents live in the same house or not.
- 3) The age of housewives is not concerned with whether their parents lived with them or not.
- 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ge of housewives and monthly income is not significant.
- 5)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ge of housewives and monthly expenditure is significant.
- 6)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ge of housewives and monthly savings is not significant.

序 論

現代 資本主義 經濟社會에서 都市化가 가속화 되고 인구 유동이 심화하여 家族의 形態는 核家族으로 變하고 있다. 이러한 消費의 主體인 家庭經濟는 所得과 支出의 두 部分으로 構成되어 國民經濟形成의 主要機能을 하고 있다¹⁾.

Murdock의 核家族의 成員에 해당하는 家口主와 配偶者 및 그 子女의 비율은 大都市 일수록 증가하고 小都市와 農村 일수록 감소하고 있다²⁾. 家庭經濟의 運營을 合理的으로 하기 위해서는 家庭生活의 初期부터 長期計劃을 세우고 실행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한 家庭을 形成해서 經濟的인 生活을 운영해 나갈때 가정관리자는 모든 가족구성원에게 이념 및 가치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가정관리자의 역할을 대부분 주부가 담당하고 있고 그 주부 자신은 여러 요인에 의해 가계 계획 태도가 다르게 형성된다. 특히 주부의 연령은 가계계획 및 태도 형성에 영향을 주는 객관적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부의 연령에 따른 가계의 분석은 장기 가계 설계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基礎的인 경제계획을 위하여 가정의 생활주기상 수입과 지출의 변화를 보고 이 생활주기와 財源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활주기단계를 가구형성기 및 생활기반정착기, 가계생활신장기, 안식기 및 세대교체기로 분류하고 그 단계에 맞추어 住宅計劃, 教育計劃, 老後計劃등을 수립하며 거기에 적합한 家族計劃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

하여는 우선 도시 가정은 핵가족화 되고 있는가, 주부의 연령과 시부모님을 모시는것과의 여부는 관계가 없는가, 주부의 연령과 친정부모님것과의 여부는 관계가 없는가,

주부의 연령과 월수입액은 관계가 없는가
주부의 연령과 월지출액은 관계가 있는가
주부의 연령과 월저축액은 관계가 없는가를 검토하므로서 장기생활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한다.

家計의 消費理論과 先行研究

우리는 家計의 消費 및 支出模型을 어떻게 定立하는 것이 理想的인일까?

1) 効用極大化模型(Utility Maximizing Model)

J.M. Keynes의 絕對所得假設(Absolute Income Hypothesis)을 補充 또는 代替하기위한 40년대 말에서 50대에 이르는 이른바 消費函數論爭(Consumption Function Controversy)을 거쳐 등장한 消費函數理論 가운데 대표적인것으로 J.S. Duesenberry의 相對所得假設(Relative Income Hypothesis)³⁾ M. Friedman의 恒常所得假設(Permanent Income Hypothesis)과 A. Ando 및 F. Modigliani의 生活週期消費假說⁴⁾ 들수 있다. 그중에서도 마지막 두가지 假設이 가장 有力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많은 實證的 研究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生活週期假說인데 이것을 定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Maximize $u = u(C_1^0, \dots, C_n^0; C_1^1, \dots, C_n^1; \dots; C_1^T, \dots, C_n^T)$

Subject to

$$\sum_{t=0}^T \sum_{i=1}^n \frac{C_i^t}{(1+r)^t} \leq \sum_{t=0}^T \frac{Y_t}{(1+r)^t}$$

단 여기서 u 는 效用函數, C_i^t 는 모든 時期(現在 0에서 死亡豫想時期 T까지의 下添字 t로 표시)에 걸쳐 나타나는 모든 消費項目(①에서 n까지 項目을 上添字로 표시)의 흐름, Y_t 는 時間(역시 下添字 t로 표시)에 따라 나타나는 所得의 흐름, r 은 割引率.

즉 소비자의 합리적 행위는 그의 일생에 걸쳐 예상되는 소득흐름의 現在價値 $\left(\sum_{t=0}^T \frac{Y_t}{(1+r)^t} \right)$ 를 결정해야 한다

는 制約條件하에서 一生의 모든 項目의 消費로 부터 얻는 效用를 極大化하는 문제로 집약하여 표현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合理的 消費行爲理論에 影響力說(Potency theory)을 도입하므로써 現實에 접근하게 된다. 影響力說에 의하면 사람은 그들의 의지를 가지고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욕구를 느낀다고 한다. 社會的 地位, 役割, 個人的 特性등을 가지고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現在社會에서는 貨幣로 구입할 수 있는 商品을 通하여 가장 두드러지게 이러한 욕구가 充足된다. 화폐는 일반적인 영향력의 상징이다. 影響力說 이외에도 消費者行爲는 非合理的인 것으로 나타나는 수가 많다.

첫째로, 매일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지출 및 저축의 결정은 보잘것 없는 항목의 미미한 금액의 것일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效用極大化模型에서와 같은 치밀한 費用, 便益의 分析이 불필요하게 보이는 수가 많다. 둘째로 습관적 지출, 충동적 구입행위가 지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셋째로 잘사는 이웃을 따라가기 위한 사회적 압력이 작용한다. 넷째로 合理化의 경향이 있다. 합리적인 소비자는 그의 수많은 의사결정 하나 하나에 便益이 費用을 초과하지만 하면 만족한다는 것이 效用滿足模型이다(Utility Satisficing Model)또 家族단위 입장에서 效用滿足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理想的인 것으로 이것이 家族效用滿足模型이다.(Family utility Satisficing Model)

2) 家口主 年齡階層別 家計支出

표에 의하면 家計支出 가운데 消費支出이 차지하는 比率이 24세 이하의 家口主를 가진 家口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租稅, 公課金 및 支拂利子 등으로 구성되는 非消費支出분이 이 年齡階層에서는 해당사항이 가장 적기 때문이다. 消費支出은 40代와 50代 초반에 이르러 가장 낮아졌다가 50代 후반부터 다시 오름세를 보여 앞에서 살펴본 家庭生活週期的 支出의 흐름과 같은 추세를 보인다. 食料品費는 所得水準, 家口員數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24이하의 家口主를 가진 家口에서 가장 높고 20代 후반에서 30代 후반까지 대체로 家計支出가운데 40%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40代와 50代 초반에 그이하로

표 1. 家口主 年齡階層別 家計支出 - 1975~78 平均 (全都市家口當 月平均) (단위 : %)

	24세이하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	平均
家計支出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消費支出	97.8	96.6	95.5	95.1	94.5	94.5	94.9	95.4	95.2
食料品費	43.1	40.6	41.8	41.8	38.9	37.3	37.7	39.4	40.3
住居費	16.6	19.4	19.2	19.0	18.1	16.5	15.8	15.4	18.2
光熱費	4.9	4.9	5.0	4.9	4.6	4.5	4.4	4.4	4.8
被服費	10.2	10.0	9.3	8.8	8.4	9.0	9.3	8.2	9.1
醫療費	4.4	5.1	5.1	4.6	3.8	3.1	3.1	3.5	4.2
教育費	6.0	1.9	1.4	3.2	8.4	10.9	11.1	10.3	5.8
雜費	12.9	14.7	13.7	12.8	12.4	13.2	13.6	13.9	13.3
非消費支出	2.2	3.4	4.6	4.9	5.5	5.5	5.1	4.6	4.8

出處：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都市家計年報」, 各券

낮아지며 50대 후반부터 다시 40% 수준으로 된다. 가장 변화를 보이는 住居費는⁵⁾ 家計支出에 대한 比率로 보아 住宅費는 家口主 24세 이하의 家口의 경우 17%를 유지하다가 20대 후반에서 30대에 걸쳐 가장 높아져 19% 초과하다가 40대 초반에 18%로, 40대 후반 이후부터 떨어져 55세 이상에 이르러 15% 수준으로 접근한다. 住居費 細目の 變化推移를 보면 24세 이하 및 20대 후반의 家口의 경우 住居費 가운데 房賃가 가장 두드러지고 自家評價額은 30대 초반부터 점차 상승하여 40대 초반이후가 그 이전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住宅修理는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까지가 높다⁶⁾. 이것은 住居生活週期 (Housing Life Cycle) 와¹³⁾ 같은 흐름을 가진다. 住居生活週期란, 부부가 결혼하여 일정한 거처를 마련한 다음 자녀를 출산하여 그들을 양육, 결혼시키고 사망할 때까지 여러가지 住居變動을 보이다가 사망으로 住居生活이 종결되는 과정을 말한다⁷⁾. 이는 家庭生活週期の 개념에 근거한 것으로, 家庭生活週期를 보는 여러 측면 중에서 住居變動을 강조한 것이다. 住居生活週期를 住宅의 所有關係를 中心으로 하여 月賃에서, 傳賃에서, 自家의 단계를 거치는 과정으로 보았다. 이를 교육, 직업, 소득, 연령에 따라 고찰함으로써 自家로 가장 많이 이행하는 시기가 결혼후 10년임을 밝히고 적어도 自家를 마련해야 하는 시기를 10년으로 설정하였다.

光熱費比率는 40대와 50대 초반에 매우 경미하게 낮아지는 듯 하다. 대체로 一生을 통하여 5% 수준에 있다. 被服費의 比率는 家口主가 20대인 경우 10%를 초과하나 30대 이후 점차 낮아져 40대 초반에 8%에 접근한다. 40대 후반 이후 子女의 成長, 다소간의 生活餘裕 등을 이유로 다시 9% 이상으로 상승되었다가 50대 후반 이후의 老年期에 다시 8% 수준으로 저하함을 볼 수 있다. 保健衛生費 比率는 全年齡階層 家口當平

均으로 4.2%를 차지한다. 지출비율이 큰 시기는 家口主나 24세 이하 계층과 30대 초반에 5.1%로서 가장 높다. 이것은 자녀의 出産, 嬰兒 및 幼兒의 診療 등과 긴밀하게 관계된다고 이해될 수 있다. 이 比率는 40대 후반과 50대 초반에 가장 낮고 50대 후반 이후의 老年期에 접어들면서 다소 오른다.

教育費, 住居費와 함께 生活週期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를 보이는 것은 教育費이다. 家口主 나이 24세 이하의 家口에서 教育비가 6%의 높은 比率를 보이는 것은 비교적 일찍 家口를 形成한 젊은이들 가운데 아직 학교교육을 필하지 못하여 가구주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교육비 부담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家口主인 경우 국민학교 학생 또는 그 이전의 어린 자녀를 가지므로 교육비 비율이 2%로 저하된다. 30대 후반에 3%, 40대 초반에는 8% 초과하여 급속히 상승한다. 40대 후반과 50대 초반에는 11% 수준의 정점에 이르렀다가 50대 후반 이후에도 역시 높은 교육비 부담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가구주 본인의 만혼화, 고등교육의 보편화로 인한 교육의 장기화 등의 결과이다. 노후 생활 자금마련에만 전념할 수 없으며 그 시기는 훨씬 뒤에 나타나는 실정이다. 교육비는 단순히 소비·지출이라는 차원을 벗어나 상당부분이 人間資本投資라는 성격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雜費(교통통신비, 교양오락비, 기타잡비)가 家計支出 가운데 차지하는 比率는 평균 약 13%의 수준에 머물러 일생주기를 통해서 특징적인 것이 없다. 다만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50대 초반과 50대 후반 이후에 잡비의 비율이 높아지며 30대 후반과 40대에서 낮아진다. 특히 住居費와 教育費의 변화추이가 다른 支出費目과 對照的인 變化推移를 보인다. 가구주가 30대末까지의 前期에는 주로 주택문제로, 40대 이후의 후기에는 주로 子女들의 教育때문에 苦心하게

표 2. 人口 構造의 變化

	'65	'70	'75	'81	'86	'91	비 고
平均壽命	62	65	68	70	72	74	
老齡人口指數	6.2	6.1	5.9	6.3	6.7	7.6	65세 이상 인구 15~64세 인구 ×100
年少人口指數	81.7	77.2	66.6	53.3	47.4	43.8	0~14세 인구 15~64세 인구 ×100

出處: 韓國 開發研究院, 「第5次 5個年 計劃 作成을 위한 社會保障部門의 主要 政策課題」, 1980.6.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같은 가계지출을 가계자체의 소득만을 가지고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가 문제점이다.

한편 한국인의 평균수명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표2는 우리나라 人口의 平均壽命은 65년의 62세에서 70년의 65세, 75년의 68세, 81년에는 70세로 점차 延長되어 왔으며 이같은 平均壽命延長化 趨勢가 앞으

로도 계속되어 86년은 72세, 91년은 74세로 先進國 國民의 平均水準에 육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結婚年齡을 보면 出生에서 부터 結婚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는 心身의 成長, 教育, 職業訓練등을 위한 긴 기간이 存在하지만 1980년의 자료에서⁸⁾ 男子既婚者 가운데 初婚當時의 나이가 20代 후반(25세에서 29세까지)이었던 사람들의

表 3. 主婦年齡과 男便과의 나이差異

주부연령 남편과의 나이차	25미만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이상	N	비 고
동 일	5 (17.86)	6 (8.00)	2 (4.17)	2 (4.55)	6 (7.90)	6 (4.03)	8 (10.53)	3 (11.11)	—	38 (7.21)	
1	3 (10.71)	6 (8.00)	4 (8.33)	7 (15.91)	2 (2.63)	15 (10.07)	11 (14.47)	1 (3.70)	—	49 (9.30)	
2	1 (3.57)	15 (20.00)	11 (22.92)	3 (6.82)	13 (17.11)	17 (11.41)	8 (10.53)	4 (14.82)	2 (50.00)	74 (14.04)	
3	4 (14.29)	9 (12.00)	8 (16.67)	5 (11.36)	12 (15.79)	22 (14.77)	7 (9.21)	1 (3.70)	1 (25.00)	69 (13.09)	
4	5 (17.86)	16 (21.33)	8 (16.67)	6 (13.64)	16 (21.05)	29 (19.46)	13 (17.11)	3 (11.11)	1 (25.00)	97 (18.41)	
5	5 (17.86)	13 (17.33)	4 (8.33)	9 (20.46)	9 (11.84)	19 (12.75)	7 (9.21)	6 (22.22)	—	72 (13.66)	
6	2 (7.14)	4 (5.33)	3 (6.25)	4 (9.09)	9 (11.84)	17 (11.41)	10 (13.16)	2 (7.41)	—	51 (9.68)	
7	2 (7.14)	3 (4.00)	1 (2.08)	2 (4.55)	3 (3.95)	11 (7.38)	7 (9.21)	1 (3.70)	—	30 (5.69)	
8	1 (3.57)	2 (2.67)	4 (8.33)	2 (4.55)	2 (2.63)	9 (6.04)	2 (2.63)	1 (3.70)	—	23 (4.36)	
9	—	—	2 (4.17)	2 (4.55)	2 (2.63)	1 (0.67)	3 (3.95)	1 (3.70)	—	11 (2.09)	
10이상	—	1 (1.33)	1 (2.08)	2 (4.55)	2 (2.63)	3 (2.01)	—	4 (14.82)	—	13 (2.47)	
N	28 (100)	75 (100)	48 (100)	44 (100)	76 (100)	149 (100)	76 (100)	27 (100)	4 (100)	527 (100)	

$\chi^2 = 89.23 < \chi^2_{(80, 0.05)} = 101.90, P < 0.05$

比率이 40.8%로서 으뜸이며, 그다음이 20代 초반(20세에서 24세까지)으로 31.7%였다. 따라서 20代가 72.5%의 大宗을 이루고 있으며 30代 이상이 16.4%, 그리고 10代가 10.1%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女子의 初婚年齡은 남자보다 대체로 4세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

表 3에서 主婦年齡과 男便과의 나이 着異에 있어서 4살 차이가 18.41%, 5살 차이가 13.66%, 3살 차이가 13.09%로서 45.16%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25세미만일 경우 동일하다가 17.86%와 4살차이, 5살차이는 17.86%으로 나타났다. 25세에서 29세 사이에는 2살차이가 20%, 4살차이 21.33%로서 제일 높게 나타났다. 30세에서 34세 사이에서 2살차이는 22.92%, 3살, 4살 차이는 16.67%로 나타났고, 35세에서 39세까지는 5살 차이가 20.46%로, 40세에서 44세까지는 4살 차이가 21.05%로, 45세에서 49세까지 4살차이가 19.46%로, 50세에서 54세까지는 4살차이가 17.11%로, 55세에서 59세까지는 5살차이가 22.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나타난 결과로 각 연령층을 막론하고 거의 동일하게 부부의 나이차이는 4살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4에서 우리나라 人口 가운데 都市部門에 거주하는 人口의 比率은 61년도에 28.8%에서 70년의 43.1%, 그리고 75년도에는 50.9%로 급격한 증가 推移를 보이고 있다. 結婚하여 都市, 농촌중 어느 地域에 居住地를 잡느냐를 살펴보았다. 家庭生活週期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한 家口가 平均 몇 食口를 갖느냐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 平均家口員數가 都農의 구별없이 일률적으로 적어지고 있다. 즉 都市 部門에서는

平均家口員數가 5.9인이던 61년에서부터 70년의 5.1인, 다시 75년 4.9인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農村 部門에 있어서도 61년의 6.2인으로 부터 70년의 5.8인, 75년의 5.6인으로 줄어 들고 있다. 특히 都市部門에 있어서는 夫婦가 두셋 정도의 子女만을 갖는 核家族化 傾向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農村部門에 있어서도 역시 大家族制度의 붕괴추세를 엿볼 수 있다. 이 같은 일련의 경향은 長期生活設計를 위해 특히 都市部門에 있어서 家口主의 老後生活對策과 住宅購入方法이 매우 어려운 課題로 된다. 核家族化되는 趨勢에 있는 우리나라 家族制度內에서는 老人層에 대한 關心度低下를 反映하는 것으로서 醫保受惠對象者를 상대로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⁹⁾ 年齡階層別로 한사람이 1년동안 診療받은 횟수를 試算해 본 결과 男子의 경우 0세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4세까지의 幼兒, 20代 후반에서 30代 초반까지 階層 등의 순서로 나타난다. 女子의 경우에는 그순서는 마찬가지로 결국 男女를 통틀어 보면 0세의 嬰兒가 11.7(回/年)으로 으뜸이고, 그다음이 4세미만의 幼兒가 1.16(回/年), 5세에서 14세 어린이의 0.61(回/年) 등의 순서이다. 여기서 65세 이상의 老人層의 平均診療回數가 가장 적게 나타난다고(0.13回/年)했다. 이것은 家口主 世代의 夫婦가 高齡化 되었을때의 醫療費自擔能力을 스스로 갖출 수 있도록 미리 對備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하며, 社會政策的인 次元에서 老齡層의 社會保障制를 新說 擴大하여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¹⁰⁾. 앞에서 경제준비가 필요한 이유를 고찰했다. 그것에 대비한 經濟準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 할때, 貯蓄에 대하여 알아보자. 소득과 지출과 저축과의 함수관계를 보면, 소비지출은 소득수준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변화한다.

「일정한 소득은 消費와 貯蓄으로 配分된다. 즉 貯蓄性向은 $\frac{\text{貯蓄額}}{\text{所得額}}$ 과 같으며, 소득이 증대하면 이에 따라 貯蓄의 比率은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다. 대개 소득이 평균적으로 증대함에 따라 소비가 많아진다. 그러한 증가분은 소득의 증가분 만큼 크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逆으로 생각하면 限界貯蓄性向은 소득이 증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이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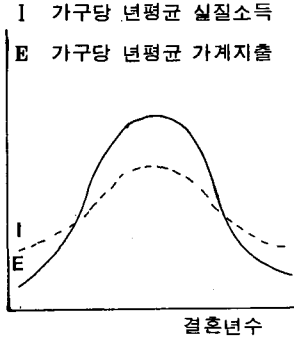
버어크(Marguerite C. Burk)는 結婚年數에 따른 所得과 支出의 變動傾向을 그림 1-1과 같이 圖示했다¹²⁾. 그림 1-2는 가장의 연령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圖示했다¹²⁾.

표 4.

	都市人口比率(%)	家口員數(人)		外國의 都市人口比率(%)
		都市	農村	
1961	28.2	5.9	6.2	美國 76.3 ('75)
1970	43.1	5.1	5.8	日本 75.9 ('75)
				西獨 83.4 ('75)
1975	50.9	4.9	5.6	臺灣 48.5 ('78)

出處: 韓國開發研究院,

「第5次 5個年計劃 作成을 위한 社會保障 部門의 主要政策課題」, 1980. 6.



(출처) I.H. Gross, E.W. Crandall, M.M. Knoll,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Appleton Century-Crfts, 1973. P. 548
 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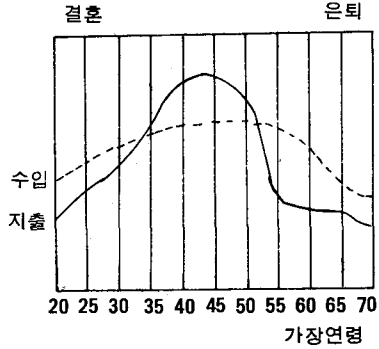


그림 1-2

클리크(Paul C. Glick)와 비이어(David M. Beer)는 그림 1-2와 家庭生活週期를 통한 收入과 支出의 類型을 나타내었다. 이와같이 家庭生活週期의 단계에 따라 所得과 支出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長期家計計劃을 수립하지 않으면 剩餘가 생기는 時期에는 낭비를 초래하고 부족이 생기는 시기에는 가계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득과 지출의 長期的인 變形을 예측함으로써 不意의 赤字에 대비하고 잉여액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方法을 모색하여야 한다.

研究問題 및 假說

本 研究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假說은 다음과 같다.

- ① 韓國의 都市家庭은 核家族化 되고 있는가?
- ② 주부의 연령에 따른 월수입의 특징은?
- ③ 주부의 연령에 따른 월생활비 지출은?
- ④ 소득흐름과 지출흐름이 가지는 장기가계 대비책으로의 설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假說設定

假說 1. 都市家庭은 核家族化 되고 있다.

- 1-1. 주부연령과 시부모님 모시는 여부는 관계가 없다.
- 1-2. 주부연령과 친정父母님 모시는 여부는 관계가 없다.
- 2. 主婦의 年齡과 月收入額은 관계가 없다.
- 3. 主婦의 年齡과 月支出額은 관계가 있다.
- 4. 主婦의 年齡과 月貯蓄額은 관계가 없다.

研究方法 및 分析

1) 資料

本 研究은 釜山市에 거주하는 家口를 東區 36家口, 西區 103家口, 南區 92家口, 北區 24家口, 東來區 96家口, 釜山鎮區 78家口, 中區 42家口, 海雲臺區 12家口, 影島區 39家口, 總 522家口를 대상으로 하여 1982年 9月 10日부터 9月 30日까지 주부에게 설문지를 통한 面接으로 資料를 수집하였으며¹³⁾¹⁴⁾¹⁵⁾, 調查內容은 ① 가구기본 사항 및 가계수지 ② 주거의 기본 실태 ③ 가계관리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2) 資料의 分析 및 假說檢定

資料의 分析은 백분율, X² 검정(유의도 검정)을 사용하였다. 통계처리는 I.B.M. 4331, 1981年形을 이용하여 동아대학교 전자 계산소에서 실시하였다.

① 韓國의 도시가정은 핵가족화 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표 5에서 主婦年齡과 시부모님을 모시는지의 여부에서 전체적으로 모시고 있다가 20.16%, 모시지 않는다가 79.84%이고 주부의 연령별로 볼때 모시고 있다에서 25세 미만의 주부의 연령층에서 35.71%로 가장 많고 모시지 않는 경우에는 55~59세의 연령층에서 88%로 가장 많다. 표 6에서 주부연령과 친정父母님을 모시는지의 여부에서 전체적으로 모시고 있다가 6.75%, 모시지 않는다가 93.25%이고 주부의 연령별로 볼때 25세 미만이 모시고 있다가 10.71%로 가장 높다. 이 두가지 분석에서 두드러진것은 모시지 않는

表 5. 主婦年齡과 媳父母님 모시는 여부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는가 주부의 연령	있 다	없 다	N
25 미만	10 (35.71)	18 (64.29)	28 (100)
25 ~ 29	16 (22.54)	55 (77.47)	71 (100)
30 ~ 34	10 (22.22)	35 (79.78)	45 (100)
35 ~ 39	9 (21.43)	33 (78.57)	42 (100)
40 ~ 44	18 (25.00)	54 (75.00)	72 (100)
45 ~ 49	27 (18.88)	116 (81.12)	143 (100)
50 ~ 54	20 (27.78)	52 (72.22)	72 (100)
55 ~ 59	3 (12.00)	22 (88.00)	25 (100)
60 이상	1 (25.00)	3 (75.00)	4 (100)
N	114 (20.16)	389 (79.84)	503 (100)

$X^2 = 7.02 < X^2 (8, 0.05) = 15.51, P < 0.05$

쪽이 시부모님은 79.84%, 친정부모님은 93.25%로서 많다. 모신 경우엔 25세 미만의 주부 연령층에서 시부모님은 35.71%, 친정부모님은 10.71%로서 전체적으로 도시가정은 核家族化되고 있고, 경제적으로 미숙하거나, 가정 독립능력이 없을 경우에 모시고 있는 경우로 나타났다.

② 主婦의 연령에 따른 月所得構造分析 (표 7 참조)

表 6. 主婦年齡과 親정父母님 모시는 여부

주부의연령 친정 부모님을모시는가	주부의연령									
	25미만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이상	N
있 다	3 (10.71)	5 (7.46)	4 (9.52)	2 (5.00)	4 (5.63)	10 (6.99)	2 (2.90)	2 (8.00)	1 (25.00)	33 (6.75)
없 다	25 (89.79)	62 (92.54)	38 (90.48)	38 (95.00)	67 (94.37)	133 (93.01)	67 (97.10)	23 (92.00)	3 (75.00)	456 (93.25)
N	28 (100)	67 (100)	42 (100)	40 (100)	71 (100)	143 (100)	69 (100)	25 (100)	4 (100)	489 (100)

$X^2 = 5.57 < X^2 (8, 0.05) = 15.51, P < 0.05$

全體的으로 세대주의 月平均收入은 30~50만원 사이에 33.20%이다. 全部市 근로자 月平均所得이 1982年 2/4분기 34만7천원으로 나타났다¹⁶⁾. 연령별로는 월수입이 25세 미만이 20~25만원 (21.43%), 25~29세는 25~30만원 (25.33%), 30~34세는 30~40만원 (22.92%)와 40~50만원 (22.92%), 35~39세는 30~40만원 (23.26%), 40~44세는 40~40만원 (17.57%)와 40~50만원 (16.22%), 45~49세는 40~50만원 (17.73%)와 50~60만원 (17.02%), 50~54세는 30~40만원 (21.92%)와 40~50만원 (15.07%), 55~59세는 30~40만원 (18.52%)와 60~80만원 (14.82%)와 100만원이상 (14.82%), 60세 이상은 40~80만원 (99.99%)로 나타났다. 25~49세까지는 상승하다가 대체적으로 月收入이 50세에서 점점 낮아지고 있다. 수입액이 최고에 달하는 기간은 45~49세 기간이다. 이 소득곡선은 클리크(Paul. C. Glick)와 비어(David. M. Beer)에서 家庭生活週期를 통한 收入과 支出의 類型과 같이 나타났다¹⁷⁾.

③ 主婦의 年齡에 따른 생활비 지출分析.

표 8에서 주부의 연령과 月平均 生活費 支出은 全體的으로 10~30만원 (43.91%)이고 25세미만이 10~20만원 (39.29%), 25~29세는 10~30만원(71.14%), 30~34세는 20~40만원 (41.76%), 35~39세는 20~30만원 (30.24%)와 30~40만원 (9.30%)와 40~50만원 (11.63%)와 50~60만원 (13.95%), 40~44세는 10~20만원 (22.67%)와 20~30만원 (21.33%)와 30~40만원 (14.67%)와 40~50만원 (13.33%), 45~49세는 20~30만원(15.17%)와 30~40만원 (20.69%)와 40~50만원 (14.48%)와

50~60만원 (15.17%), 50~54세는 20~30만원 (22.97%)와 30~40만원 (27.03%)와 40~50만원 (16.22%)와 50~60만원 (10.81%), 55~59세는 10~20만원 (25.94%)와 20~30만원 (14.82%)와 30~40만원 (25.93%), 60세 이상은 20~50만원 (99.9%) 이상에서 생활비 지출은 40~44세, 45~49세의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지출되고 있다. 이 시기는 가정 생활주기에서 자녀의 고등교육기에 있으며

表 7. 主婦年齡과 세대주의 月平均收入

세대주 의 월 평균수입	주부의 연령										N
	25 미만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이상		
10 미만 (만)	1 (3.57)	2 (2.67)	—	—	2 (2.70)	3 (2.13)	2 (2.74)	—	—	—	10 (1.95)
10~15 미만	1 (3.57)	4 (5.33)	1 (2.08)	1 (2.33)	2 (2.70)	3 (2.13)	1 (1.37)	1 (3.70)	—	—	14 (2.73)
15~20 미만	—	4 (5.33)	1 (2.08)	—	4 (5.41)	3 (2.13)	3 (4.11)	—	—	—	15 (2.93)
20~25 미만	6 (21.43)	5 (6.67)	4 (8.33)	3 (6.98)	5 (6.76)	4 (2.84)	2 (2.74)	3 (11.11)	—	—	32 (6.25)
25~30 미만	3 (10.71)	19 (25.33)	3 (6.25)	4 (9.30)	11 (14.87)	14 (9.93)	3 (4.11)	3 (11.11)	—	—	60 (11.72)
30~40 미만	6 (21.43)	10 (13.33)	11 (22.92)	10 (23.26)	13 (17.57)	19 (13.48)	16 (21.92)	5 (18.52)	—	—	90 (17.58)
40~50 미만	3 (10.71)	10 (13.33)	11 (22.92)	4 (9.30)	12 (16.22)	25 (17.73)	11 (15.07)	3 (11.11)	1 (33.33)	—	80 (15.62)
50~60 미만	1 (3.57)	5 (6.67)	4 (8.33)	3 (6.98)	4 (5.41)	24 (17.02)	13 (12.81)	1 (3.70)	1 (33.33)	—	56 (10.94)
60~80 미만	2 (7.14)	3 (4.00)	2 (4.17)	3 (6.98)	7 (9.46)	15 (10.64)	7 (9.59)	4 (14.82)	1 (33.33)	—	44 (8.59)
80~100 미만	3 (10.71)	7 (9.33)	5 (10.42)	6 (13.95)	7 (9.46)	15 (10.64)	8 (6.85)	3 (11.11)	—	—	54 (10.54)
100~150 미만	—	3 (4.00)	5 (10.42)	4 (9.30)	4 (5.41)	7 (4.97)	2 (2.74)	—	—	—	25 (4.88)
150 이상	2 (7.14)	3 (4.00)	1 (2.08)	5 (11.63)	3 (4.05)	9 (6.38)	5 (6.85)	4 (14.82)	—	—	32 (6.25)
N	28 (100)	75 (100)	48 (100)	43 (100)	74 (100)	141 (100)	73 (100)	27 (100)	3 (100)	—	512 (100)

$\chi^2 = 83.58 < \chi^2 (88, 0.05) = 110.61, P < 0.05$

로 생활비 부담이 확대되고 특히 교육비가 증가하며 자녀들의 용돈과 그밖의 비용의 증가로 가계의 지출이 상당히 커진다¹⁷⁾.

④ 소득의 흐름과 지출의 흐름이 가지는 장기 가계 대비책으로의 저축의 실태.

소득의 흐름의 展望에서 나타난 사실로서

i) 40대에 접어들기까지는 家口主所得형편은 낙 낙하지 못하므로 家口主는 가계를 담당하는 부담압박

을 무겁게 느낀다.

ii) 가구주소득은 40代(40~49세)에 絶頂期를 맞이하고 50代전반에도 여전히 높아 이 15년간에 저축 잠재능력을 활용하느냐가 가정생활주기의 생활설계에 관련이 된다.

iii) 자녀등 기타 家口員의 소득이 50代 전반부터 큰몫을 담당하기 시작한다.

支出의 흐름의 展望에서 나타난 사실은

表 8. 主婦年齡과 月平均 生活費支出

주부의 연령 월평균생활지출비	주부의 연령										N
	25미만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이상		
10 미만 (만)	3 (10.71)	5 (6.85)	2 (4.17)	3 (6.98)	3 (4.00)	8 (5.52)	2 (2.70)	1 (3.70)	—	—	27 (5.22)
10~20 미만	11 (39.29)	33 (45.22)	16 (33.30)	8 (18.61)	17 (22.67)	16 (11.03)	9 (12.16)	7 (25.94)	—	—	117 (22.63)
20~30 미만	9 (32.14)	16 (25.92)	12 (25.00)	13 (30.24)	16 (21.33)	22 (15.17)	17 (22.97)	4 (14.82)	1 (33.3)	—	110 (21.28)
30~40 미만	2 (7.14)	5 (6.85)	8 (16.67)	4 (9.30)	11 (14.67)	30 (20.69)	20 (27.03)	9 (25.93)	1 (33.3)	—	89 (17.22)
40~50 미만	—	6 (8.22)	2 (4.17)	5 (11.63)	10 (13.33)	31 (14.48)	12 (16.22)	2 (7.41)	1 (33.3)	—	59 (11.42)
50~60 미만	2 (7.14)	6 (8.22)	2 (4.17)	6 (13.95)	6 (8.00)	22 (15.17)	8 (10.81)	3 (11.11)	—	—	55 (10.64)
60~70 미만	—	—	—	1 (2.33)	4 (5.33)	6 (4.14)	—	—	—	—	11 (2.13)
70~80 미만	—	2 (2.74)	1 (2.08)	2 (4.65)	2 (2.67)	3 (2.07)	1 (1.35)	—	—	—	11 (2.13)
80~90 미만	—	—	2 (4.17)	—	1 (1.33)	7 (4.83)	2 (2.70)	1 (3.70)	—	—	13 (2.52)
90~100 미만	—	—	2 (4.17)	1 (2.33)	3 (4.00)	5 (3.45)	—	—	—	—	11 (2.13)
100 이상	1 (3.57)	—	1 (2.08)	—	2 (2.67)	5 (3.45)	3 (4.02)	2 (7.41)	—	—	14 (2.71)
N	28 (100)	73 (100)	48 (100)	43 (100)	75 (100)	145 (100)	74 (100)	27 (100)	3 (100)	—	517 (100)

$\chi^2 = 115.09 > \chi^2 (80, 0.01) = 112.33, P > 0.01$

i) 가구주 나이 40세 이전까지는 住居(전세 및 내집마련)을 위한 지출이 가장 무겁게 나타난다. 이 시기에 있어서 앞으로의 예상되는 높은 소득흐름을 근거로 하여 내집마련을 위한 借入을 고려할 수 있다.

ii) 이와는 대조적으로 40대와 50대전반에는 女子의 教育費支出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난다. 앞으로 家計生活에의 보탬가능성, 가구주 소득의 제약한계, 결혼적령기를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의 노후대책도 세워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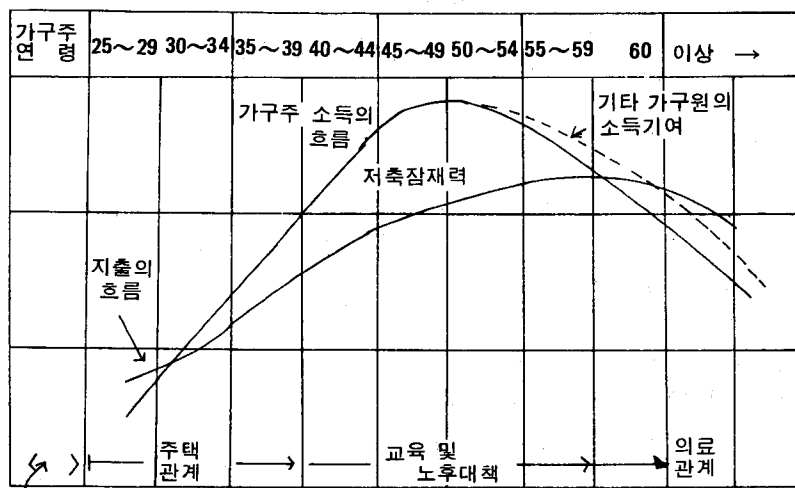
iii) 지난날의 借入金償還과 정년퇴직 이후에도 의료비, 자녀결혼비 등으로 지출수준은 크게 낮아지지 않는다. 그림 2에서 소득의 흐름과 지출의 흐름이 가지는 대비책으로 장기생활설계를 다시 合理的으로 檢討하기 위하여 가정생활 주기적 장기소비, 저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주부의 연령과 月저축액은 표 9에서 전체적으로 月저축액은 '없다'가 9.84%, 3~5만원이 13.05%, 10~15만원이 12.45%, 30만원 이상이 13.05%로 저축액이 고르지 않다. 연령별로 보면 25세미만은 다양한 분포를 나타낸다. 가정생활 주기상으로 보면 경제적 독립과 核家族化되지 않는 미숙한 확대 가족형태에서, '없다'가 7.14%, 7~10만원이 17.86%, 15~20만원이 17.86%, 30만원 이상이 10.71%를 차지한다.

이것은 세대주의 소득이나 수입원이 모두 저축으로 모아지지 않는가 의문점이다. 25~29세에서는 '없다'(8.57%), 3~5만원(20%), 15~20만원(10%) 20~30만원(10%), 30만원 이상(10%), 30~34세에서는 '없다'(17.37%), 1~2만원(10.87%) 3~5만원(10.87%), 10~15만원(13.04%), 15~20만원(13.04%), 30만원 이상(13.04%)로 나타난다.

35~39세에서는 '없다'(13.95%), 3~5만원(13.95%), 15~20만원(13.95%), 30만원 이상(20.93%)로 소득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연령이 많아질수록 저축액이 증가하고 있다. 40~44세에서는 '없다'(11.11%), 5~7만원(13.89%), 10~15만원(18.06%), 15~20만원(9.72%), 30만원 이상(13.89%), 45~49세에서는 '없다'(7.14%), 3~5만원(12.14%), 10~15만원(11.43%), 20~30만원(14.29%), 30만원 이상(17.14%), 50~54세에서는 '없다'(8.7%), 2~3만원(13.04%), 3~5만원(14.47%), 10~15만원(18.84%), 20~30만원(3.04%), 30만원 이상(5.8%), 55~59세에서는 3~5만원(16%), 5~7만원(24%), 7~10만원(20%), 60세 이상에서는 '없다'(25%), 3~9만원(25%), 10~15만원(50%)이다.

표 10에서 세대주의 平均 月 收入과 月 저축액에서



장기생활설계의 주요재검토 시기와 지출 포인트

그림 2. 소득 흐름과 지출 흐름의 가정생활주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월수입 10만원 미만에서는 '없다'(20%), 1만원미만 (20%), 2~3만원 (20%), 월수입 10~15만원에서는 없다(8.33%), 1만원미만 (16.67%), 5~7만원 (25%), 10~15만원 (16.67%) 여기서 월수입을 월저축액으로 전부하는 가수도 있다. 월수입 15~20만원에서는 '없다'(14.49%), 2만원 以内(28.58%), 5~7만원 (14.29%), 월수입 20~25만원에서는 없다 (6.45%), 7~10만원 (16.13%), 20만원 이상(22.58

%), 월수입이 25~30만원에서는 '없다'(13.12%), 3~5만원 (16.39%), 20만원 이상 (14.76%), 월수입이 30~40만원에서는 없다 (11.49%), 7~10만원 (13.79%), 20~30만원(11.49%), 30만원 이상(13.94%), 월수입이 40~50만원에서는 '없다'(11.84%), 3~5만원 (13.16%), 10~15만원 (13.16%), 20만원 이상 (21.05%), 월수입이 50~60만원에서는 '없다' (7.84%), 3~5만원 (15.69%) 15~20만원 (13.73

表 9. 主婦年齡과 月貯蓄額

주부의 연령 월저축액	25미만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이상	N
없 다	2 (7.14)	6 (8.57)	8 (17.39)	6 (13.95)	8 (11.11)	10 (7.14)	6 (8.70)	1 (4.00)	1 (25.00)	49 (9.84)
1미만 (만)	2 (7.14)	3 (4.29)	2 (4.35)	3 (6.98)	2 (2.78)	4 (2.86)	3 (4.35)	1 (4.00)	—	20 (4.02)
1~2	2 (7.14)	1 (1.43)	5 (10.87)	1 (2.33)	3 (4.17)	8 (5.71)	2 (2.90)	—	—	22 (4.22)
2~3	1 (3.57)	5 (7.14)	1 (2.17)	4 (9.30)	4 (5.56)	8 (5.71)	9 (13.04)	2 (8.00)	—	34 (6.83)
3~5	4 (14.29)	14 (20.00)	5 (10.87)	6 (13.95)	4 (5.56)	17 (12.14)	10 (14.49)	4 (16.00)	1 (25.00)	65 (13.05)
5~7	2 (7.14)	6 (8.57)	2 (4.35)	1 (2.33)	10 (13.89)	13 (9.29)	5 (7.25)	6 (24.00)	—	45 (9.04)
7~10	5 (17.86)	6 (8.57)	2 (4.35)	3 (6.98)	7 (9.72)	12 (8.57)	6 (8.70)	5 (20.00)	—	46 (9.24)
10~15	—	8 (11.43)	6 (13.04)	3 (6.98)	13 (18.06)	16 (11.43)	13 (18.84)	1 (4.00)	2 (50.00)	62 (12.45)
15~20	5 (17.86)	7 (10.00)	6 (13.04)	6 (13.95)	7 (9.72)	8 (5.71)	2 (2.90)	1 (4.00)	—	42 (8.43)
20~30	2 (7.14)	7 (10.00)	3 (6.52)	1 (2.33)	4 (5.56)	20 (14.29)	9 (13.04)	2 (8.00)	—	48 (9.64)
30이상	3 (10.71)	7 (10.00)	6 (13.04)	9 (20.93)	10 (13.89)	24 (17.14)	4 (5.80)	2 (8.00)	—	65 (13.05)
N	28 (100)	70 (100)	46 (100)	43 (100)	72 (100)	140 (100)	69 (100)	25 (100)	4 (100)	498 (100)

$X^2 = 93.65 < X^2(80, 0.05) = 101.90, P < 0.05$

%), 20만원 이상(17.64%). 월수입이 60~80만원에서는 '없다'(7.32%), 3~5만원(12.20%), 10~15만원(17.07%), 월수입이 80~100만원에서는 '없다'(6%), 7~10만원(14%), 20만원 이상(30%), 월

수입이 100~150만원에서는 '없다'(4.55%), 3~5만원(31.82%), 30만원 이상(27.27%), 월수입이 150만원 이상에서는 '없다'(12.90%), 10~15만원(22.58%), 30만원 이상(16.13%)로 각각 나타났다. 전체

表 10. 세대주의 平均月收入과 月貯蓄額

저축 월수입	저축											
	없다	1미만(만)	1~2	2~3	3~5	5~7	7~10	10~15	15~20	20~30	30이상	N
10미만(만)	2 (20.00)	2 (20.00)	—	2 (20.00)	1 (10.00)	1 (10.00)	—	1 (10.00)	—	1 (10.00)	—	10 (100)
10~15	1 (8.33)	2 (16.67)	—	—	1 (8.33)	3 (25.00)	1 (8.33)	2 (16.67)	1 (8.33)	—	1 (8.33)	12 (100)
15~20	2 (14.49)	2 (14.29)	2 (14.29)	—	1 (7.14)	2 (14.29)	1 (7.14)	2 (14.29)	—	1 (7.14)	1 (7.14)	14 (100)
20~25	2 (6.45)	3 (9.68)	1 (3.23)	2 (6.45)	3 (9.68)	3 (9.68)	5 (16.13)	3 (9.68)	2 (6.45)	5 (16.13)	2 (6.45)	31 (100)
25~30	8 (13.12)	2 (3.28)	3 (4.29)	5 (8.20)	10 (16.39)	4 (6.56)	9 (14.75)	8 (13.12)	3 (4.92)	5 (8.20)	4 (6.56)	61 (100)
30~40	10 (11.49)	2 (2.30)	2 (2.30)	9 (10.35)	8 (9.20)	6 (6.90)	12 (13.79)	8 (9.20)	7 (8.05)	10 (11.49)	13 (13.94)	87 (100)
40~50	9 (11.84)	2 (2.63)	5 (6.58)	6 (7.90)	10 (13.16)	9 (11.84)	3 (3.95)	10 (13.16)	6 (7.70)	9 (11.84)	7 (9.21)	76 (100)
50~60	4 (7.84)	—	1 (1.96)	6 (11.77)	8 (15.69)	5 (9.80)	5 (9.80)	6 (11.77)	7 (13.73)	4 (7.84)	5 (9.80)	51 (100)
60~80	3 (7.32)	3 (7.32)	2 (4.88)	2 (4.88)	5 (12.20)	1 (2.44)	1 (2.44)	7 (17.07)	7 (17.07)	2 (4.88)	8 (19.51)	41 (100)
80~100	3 (6.00)	1 (2.00)	5 (10.00)	—	6 (12.00)	5 (10.00)	7 (14.00)	3 (6.00)	5 (10.00)	5 (10.00)	10 (20.00)	50 (100)
100~150	1 (4.55)	—	1 (4.55)	—	7 (31.82)	—	1 (4.55)	3 (13.64)	1 (4.55)	2 (9.09)	6 (27.27)	22 (100)
150이상	4 (12.90)	1 (3.23)	—	—	2 (6.45)	4 (12.90)	2 (6.45)	7 (22.58)	3 (9.68)	3 (9.68)	5 (16.13)	31 (100)
N	49 (10.08)	20 (4.12)	22 (4.53)	32 (6.58)	62 (12.76)	43 (8.85)	47 (9.67)	60 (12.35)	42 (8.64)	47 (9.67)	62 (12.76)	486 (100)

$X^2 = 119.75 < X^2(110, 0.05) = 135.20, P < 0.05$

表 11. 主婦年齡과 貯蓄에 對한 見解

주부의 연령 저축에 대한 견해	25 미만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이상	N
저축보다 생활 의 안락이 우선	7 (25.92)	14 (25.92)	11 (23.91)	9 (21.95)	21 (30.88)	25 (17.86)	21 (28.77)	9 (33.33)	1 (25.00)	118 (24.04)
장래를 위한 저축이 우선	20 (74.08)	54 (74.08)	35 (76.09)	32 (78.05)	47 (69.12)	115 (82.14)	52 (71.23)	18 (69.67)	3 (75.00)	376 (75.96)
N	27 (100)	68 (100)	46 (100)	41 (100)	68 (100)	140 (100)	73 (100)	27 (100)	4 (100)	494 (100)

$X^2 = 7.11 < X^2 (8, 0.05) = 15.51 \quad P < 0.05$

적으로는 '없다'(10.08%), 1~3만원 (15.23%), 3~5만원 (12.76%), 5~10만원 (18.62%), 10~20만원 (20.99%), 20만원 이상 (22.43%)이다. 나타난 특징을 보면

① 월수입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저축을 앓는다가 10.08%나 차지하는 것은 근본적인 저축사상 인식의 부족이다.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저축에 대한 제몽, 지도가 절실히 요청된다.

② 표11에서 주부연령과 저축에 대한 견해를 조사해 본 결과, 장래를 위한 저축우선이 75.96%로 나타났고 저축보다 생활의 안락이 우선이다가 24.04%로 나타났다. 각 연령층에서 거의가 비슷한 유형을 답하고 있다. 장래가계 대비책으로 거의 저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假說檢定

앞에서 提是한 假說을 檢定하기 위하여 百分比에 의한 有意性檢定을 하였다.

1. 都市家庭은 核家族化되고 있다.

假說을 검정한 결과 79.84%로서 채택된다.

1.1. 主婦年齡이 媳父母님을 모시는 것과의 여부는 관계가 없다.

$X^2 = 7.02 < X^2 (8, 0.05) = 15.51, \quad P < 0.05$

1-2. 主婦年齡이 친정부모님을 모시는 것과의 여부는 관계가 없다.

$X^2 = 5.57 < X^2 (8, 0.05) = 15.51, \quad P < 0.05$

2. 主婦의 年齡과 月收入額은 관계가 없다.

$X^2 = 83.58 < X^2 (88, 0.05) = 110.61, \quad P < 0.05$

여기서 가설이 채택된다.

3. 主婦의 年齡과 月支出額은 관계가 있다.

$X^2 = 115.09 > X^2 (80, 0.01) = 112.33, \quad P > 0.01$

여기서 가설이 채택된다.

4. 主婦의 年齡과 月貯蓄額은 관계가 없다.

$X^2 = 93.65 < X^2 (80, 0.05) = 101.90, \quad P < 0.05$

여기서 가설이 채택된다.

結 論

本 研究은 家計의 經濟福祉의 側面에서 家庭生活週期를 通해 長期生活家計計劃을 수립하는데 目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家計를 분석하고 그 問題點을 論하였다. 家族의 形態가 核家族인 경우에는 家庭生活週期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구분 지을 수 있다. 그러므로 都市에 居住하는 家口를 對象으로 核家族化되고 있는 지의 여부와 主婦年齡에 따른 月收入額과 月支出額과 그리고 月貯蓄에 대한 調査分析 및 假說檢定을 하였다. 家庭生活段階區分을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첫째로 家口形成 및 生活基礎定着期로서 子女出產 및 家計의 物質的 生活 (衣·食·住) 특히 住居基礎가 다져짐으로 經濟的으로, 家計生活의 여유가 없어 필요에 따라 借用하게 되며, 정신적으로 긴장되는 단계이며, 家口主의 青年期和 일치한다. 둘째는 家計生活伸張期로서 家口主의 所得이 一生中 絶頂에 이르러 貯蓄潛在能力을 충분히 活用하여 지난날의 借用金을 償還할 뿐 아니라 자신의 老後生活設計, 子女의 教育, 未來指向的인 支出, 貯蓄 및 投資活動이 가장 旺盛하게 이루어진다. 이것은 家口主의 壯年期와 일치한다.

셋째로 安息期 및 世代交替期로서, 지난날 計劃, 實行된 바에 따라 貯蓄 投資의 結實을 거두며, 家口主의 經濟的 活動이 退潮하는 반면에 子女等 其他家口員의 所得寄與分이 점차로 늘어나 經濟的 主導權 및 家口主의 地位가 交替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것은 家口主의 老年期와 일치한다. 이러한 長期計劃의 目的을 수립하고 實行하기위해 各 家庭은 長期家計計劃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설 검정에서 ;

- 1) 都市 家庭은 核家族化되고 있다.
- 2) 主婦의 年齡과 媳父母님을 모시는 것과의 여부는 관계가 없다.
- 3) 主婦의 年齡과 친정父母님을 모시는 것과의 여부는 관계가 없다.
- 4) 主婦의 年齡과 月收入額은 관계가 없다.
- 5) 主婦의 年齡과 月支出額은 관계가 있다.
- 6) 主婦의 年齡과 月貯蓄額은 관계가 없다.

참 고 문 헌

- 1) 徐炳淑：家庭經濟學，修學社，p 19, p 169, 1980.
- 2) 張明郁：家庭管理學，教文社，p 23, 1982.
- 3) James, O.S.: *Duesenberry, Income, Saving and theory of Consumer behavior*(Cambridge, Mass.: Harvard, 1949).
- 4) A. Ando and Franco Modigliani: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s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63.*
- 5) 房貫，自家評價額，住宅修理，家具，什器등 包含.
- 6) 經濟企劃院：都市家計年報，1978.
- 7) 金秉燮 住居生活週期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1978.
- 8) 經濟企劃院：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 1980. 제2 권 3-2. 출산력.
- 9) 전국의료보험협의회：의료보험, Vol. 1-3 1978, 9. Vol. 2-2 1979, 2. Vol. 3-1 1980, 1.

- 10) 李性寬外 2 人：保健醫療施惠向上을 위한 保健所機能改善方案, 한국개발연구원, 1977. pp 257-302.
- 11) Marguerite, C., Bark: *About Family Economic Behavior.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58, Nb, 1966 pp 440-444.*
- 12) Gross, I.H., Crandall, E.W., Knoll, M.M..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Appleton Century-crofts, 1973. p 548.*
- 13) 표본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Grant, E.L. 공식을 사용.

$$N = \left(\frac{20\sqrt{n\sum x^2 - (\sum x)^2}}{\sum x} \right)^2$$
- 14) Barnes, R.M.: *Motion & time study Design Measurement of work, 7th. ed. John Wiley & Sons, 1980. pp 273~274.*
- 15) 金英淑：都市家計類型 診斷의 實證의 分析, 釜山大學校 대학원 석사학위, 1977. p 17
- 16) 經濟企劃院, 동아일보, 1982. 9월 11일자.
- 17) 李基春：家庭經濟學, 教文社, 1982. p 143, p 139.
- 18) 金日坤：韓國經濟開發論, 藝文館, 1976.
- 19) 金光錫：韓國家計의 貯蓄行態, 한국개발연구원, 1975.
- 20) 釜山市統計年報, 釜山市, 1980.
- 21) 鄭守永：經營學大辭典, 博英社, 1973.
- 22) 玄基順：家計簿를 통한 費目別 消費 支出의 分析, 대한가정학회지, 제 8 호.
- 23) 文淑才：都市主婦의 家庭管理行動에 對한 意識과 實態調查, 이화여자대학교, 1981.
- 24) 朴明姬：私教育費 現況과 家計, 대한가정학회지, 14 卷 1 號, 1976.
- 25) 野邊牧：家計簿의 大變化, 日本近代經營, Vol. 18, 1973.
- 26) 掘田剛吉(Takegoshi Hotta)：日本家政學會, 家政學雜誌, 家計計劃 指標의 整理法, 제26 권, 3 호.
- 27) 青木茂：家計管理 家計簿의 診斷, 다이아몬드社.
- 28) Elvin. F. Donaldson: *Personal Finance, Ronald press, N. Y., 1948.*